

주말부부의 주거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의상·주택학부 주택전공
교수 곽인숙

I. 서론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라 할 수 있다. 통계청(2001)의 조사에 의하면 1990년 여성취업자중 기혼취업자의 비율이 75.5%이던 것이 2000년에는 기혼취업자의 비율이 77.8%로 증가하였다. 기혼여성의 취업은 증가하는 자녀교육비 및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IMF 이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계를 위해 또는 노후대책을 위한 취업에 대한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전통적인 성(性)에 따른 직종의 취업 제한이나 장벽이 없어지는 추세이며,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 등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은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이고 이에 따라 맞벌이부부는 우리사회에서 보편화될 전망이다. 맞벌이부부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역할수행에 따른 어려움과 시간부족을 경험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의 수행과 자녀의 주양육자 역할에 따른 피로의 누적과 다양한 역할 요구에 필요한 시간, 노력, 에너지 고갈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맞벌이부부가 증가되면서 직업상의 이유로 가족이 불가피하게 별거해서 살아야 하고 주말에만 만날 수 있는 주말부부도 증가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주말부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수치도 없고, 이들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족한 편이다. 주말부부를 정상적인 가족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가족이 분산되어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말부부들의 가족분산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왜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주말부부들의 살아가는 유형은 다양하다. 주부들을 위한 인터넷 공간에서 공개된 주말부부들의 유형중에는 부인이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남편이 주말마다 가족을 보기 위해 이동하는 유형, 주말마다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남편에게 이동하는 유형, 애들 둘은 아빠와 살고, 엄마는 지방에서 직장에 다니고, 막내는 친가에서 키우는 등 심한 경우 가족이 3곳 이상 분산되어 생활하는 경우까지도 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형 또한 다양하다. 자녀양육의 어려움, 가정살림의 역할분담과 수행상의 어려움,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단지 소수이기 때문에 참고 살아야 할 것인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말부부가족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말부부가족의 주거지 결정은 어떤 요인에 의해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인 가족과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제도적·행정적으로 보완될 사항은 없는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주말부부가족에 대한 연구의 시초가 될 것이며, 사회적으로 주말부부가족이 일시적인 비정상적인 가족이 아닌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가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나아가 주말부부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주말부부 가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정확한 문제점이나 주거지 결정에 대한 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주말부부 가족이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주말부부가족의 주주거지(主住居地) 결정요인은 무엇이며, 부주거지(副住居地)는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주거지(主住居地)라 함은 가족중 더 많은 수의 가족이 생활하는 곳을 의미하며, 부주거지(副住居地)라 함은 혼자 또는 적은 수의 가족이 생활하는 곳을 의미한다.

셋째, 주말부부가족의 거주유형은 ?

넷째, 주말부부가족으로 생활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주말부부가족은 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며, 종적인 심층분석과 내적 요인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계량적 접근보다는 질적 접근 방법을 시도하였다. 사례의 선정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가능한 한 다양한 연령층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선정된 사례는 총 33명이었으며, 2002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2달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연구자 주변의 주말부부가족과 인터넷을 통한 조사협조 등을 통해 적절한 대상을 선정하여 개방적인 질문지로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와 따른 가족의 주거지 변동사항이나 주거지 결정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말부부로서의 이점과 문제점에 관한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보충하였다. 심층면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해 심도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음으로써 내용을 추가로 파악하였다.

III. 주말부부가족의 주거지 결정에 관한 조사 결과의 분석

1. 조사대상 사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33사례중 여자가 29명으로 전체의 87.8%였으며, 연령은 27세부터 59세까지 다양하여 각각의 연령대에 따른 주말부부로서의 주거지 결정과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었다(표 1 참조). 남편의 직업은 교수가 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원이 8명, 사업가가 5명, 교사와 의사가 각각 2명씩, 회계사 1명이었으며, 부인의 직업 역시 교수가 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사가 11명, 강사 3명, 주부가 2명이었다. 이는 연구자가 용이하게 접촉할 수 있는 주말부부들이 대부분 교직에 몸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부인의 직업이 대부분 교직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벌이부부는 33사례중 31사례로 전체의 93.9%였으며, 이는 주말부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맞벌이이며, 특히 전문직에서 일하는 경우 직장의 위치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된다. 주말부부로서 몇 년간 생활해왔는지를 물어본 결과 짧게는 1년부터 최장 19년까지 다양하였으며, 1년에서 5년 사이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년에서 10년 사이는 10명, 11년 이상된 경우도 8명이었다. 대부분 처음에는 주말부부가 이렇게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는 생각지 않았으며, 일시적인 것으로 직장의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현실적으로 직장의 위치를 해결하지 못해 장기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평균가족수는 자녀가 없는 신혼기가정의 1사례를 제외하고는 자녀가 2명인 경우가 가장 많아 21명이 가족수가 4명이었으며, 자녀가 1명인 경우도 11명이었다. 주중자녀를 주로 양육하거나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부부를 조사한 결과 부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23(69.7%)명이었으며, 남편이 주로 자녀를 돌보거나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는 10명이었다. 그러나 남편이 자녀

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70%가 시부모나 친정부모와 동거하면서 자녀양육을 맡아주고 있는 경우였다. 막내자녀가 중학교 이상된 경우에는 남편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가사는 파출부가 맡아보고 있었다. 전체 사례중 자녀양육에 시부모나 친정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11사례, 비상시나 필요할 경우 시가나 친정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는 7사례로 18사례(54.5%), 파출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9사례, 어린이집이나 공부방, 학원 등에서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3사례였다. 이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데 공적인 기관이나 사회적 지원보다는 친족의 지원이 더 많음을 알 수 있고, 자녀가 중학생 이상 되는 경우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가사노동만을 파출부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구문제 1번 주말부부 가족이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에 대한 해답으로는 주말부부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가장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부부가 전문직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취업시장에 한계가 있어 임의로 직장의 위치를 선택할 수 없는 제한점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공립교사인 경우에도 최초의 임용고시를 본 지역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므로 타시도로의 전출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주말부부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표 1> 조사대상사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례 No.	성별	연령	남편의 직업	부인의 직업	주말부부지속기간	가족수	주중자녀주양육자	자녀의 연령	가사 및 육아 해결방식
1	여자	36	교수	교사	4년	4명	부인	8세, 11세	시아머니와 동거
2	여자	45	교수	교수	9년	4명	남편	6세, 8세	시부모님과 동거
3	여자	53	회사원	교수	19년	3명	남편	29세	자녀가 해결
4	남자	38	교수	교사	5년	4명	부인	5세, 9세	유모, 외가식구
5	여자	45	회계사	교수	19년	4명	남편	15세, 16세	파출부, 시누이, 올케
6	여자	43	교수	교수	9년	3명	부인	11세	어린이집, 종일반
7	여자	42	교수	강사	17년	4명	부인	12세, 15세	본인
8	여자	59	기업주	교사	13년	4명	부인	17세, 24세	남편은 자녀가 도와줌
9	여자	42	회사원	교수	10년	3명	부인	10세	파출부, 외조부모
10	여자	35	연구원	교수	2년	4명	남편	3세, 9세	시누이와 동거
11	여자	34	회사원	강사	6년	3명	부인	5세	친정부모와 동거
12	여자	38	의사	교수	7년	4명	남편	1세, 7세	시아머니동거, 어린이집
13	여자	41	교수	교수	12년	3명	부인	10세	파출부
14	여자	47	회사원	주부	11년	4명	부인	17세, 19세	본인
15	여자	41	사업	교수	2년	4명	부인	10세, 12세	친정부모의 도움
16	여자	33	사업	교수	2년	3명	남편	5세	친정어머니동거, 파출부
17	남자	46	교수	교사	9년	3명	부인	11세	시아머니와 동거
18	여자	34	교사	교사	3년	4명	부인	6세, 10세	어린이집
19	여자	37	회사원	교사	10년	3명	부인	10세	친정부모의 도움
20	여자	37	회사원	교수	7년	4명	남편	9세, 12세	시부모와 동거
21	남자	42	교수	교사	3년	4명	부인	12세, 15세	비상시 친지, 이웃도움
22	여자	38	교수	교수	1년	4명	부인	5세, 5세	파출부, 친정부모도움
23	여자	42	기업주	교수	12년	4명	남편	14세, 17세	파출부
24	여자	51	회사원	주부	2년	4명	부인	23세, 27세	파출부
25	여자	33	강사	교수	3년	3명	남편	4세	시부모와 동거
26	여자	38	교사	교사	3년	4명	부인	10세, 14세	학원, 공부방 선생님
27	여자	44	사업	교수	9년	3명	현재동거	16세	파출부
28	여자	38	의사	교사	2년	4명	현재동거	3세, 9세	파출부
29	여자	27	교수	강사	1년	2명		자녀없음	
30	여자	35	회사원	교수	9년	4명	시누이(차남)	5세, 6세	친정부모(장남) 주말에는 부인이 장남과 올라감
31	남자	45	교수	교사	5년	4명	현재동거	12세, 16세	파출부
32	여자	43	교수	교수	14년	3명	남편	13세	시부모와 동거
33	여자	34	교수	교사	2년	4명	부인	6세, 9세	시아머니와 동거

2. 조사대상 사례의 주거환경적 특성

사례의 주거환경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주거환경을 주중에 가족이 더 많이 거주하며, 주말에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곳을 주주거지라 칭하였고, 필요에 의해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기거하게 되는 곳을 부주거지라 칭하였다. 주주거지는 지역적으로 볼 때 서울이 15사례로 가장 많고, 다음은 인천 3사례, 전주 3사례, 대구, 광주, 성남이 각각 2사례, 강릉, 천안, 일산, 울산, 춘천, 청주가 각각 1사례씩이었다.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30사례(90.0%), 단독주택은 3사례로 모두 시부모나 친정부모의 소유인 주택에 함께 기거하는 경우였다. 이는 가사노동의 절감과 주택관리가 아파트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거공간의 규모는 최소 24평에서 58평까지 다양한데, 32평인 경우가 11사례로 가장 많았으며, 24평에서 28평에 거주하는 경우가 10사례, 35평 이상 되는 경우가 12사례였다. 가구당 평균주거공간의 규모는 35.45평이었다. 가구당 주중 평균 거주인수는 평균 3.06명으로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공간의 소유상태는 자가인 경우가 23사례, 전세인 경우가 5사례, 부모님의 주택인 경우는 5사례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주주거지는 자기소유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주거지는 지역적으로 볼 때 전주가 11사례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서울 6사례, 광주 5사례, 천안, 울산이 2사례, 수원, 안성, 여주, 대구, 제주, 여수가 각각 1사례씩이었다.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30사례(90.0%), 단독주택은 3사례로 모두 시부모나 친정부모의 소유인 주택에 함께 기거하는 경우였다. 이는 혼자 기거하게 되는 경우 단독주택보다는 규모가 작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주택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주거지는 혼자 기거하게 되므로 주거공간이 비교적 좁다. 공간의 규모는 최소 방 1개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6사례, 24평이 6사례, 13평이 5사례, 15평이 4사례, 17평이 3사례, 16평과 25평이 각각 2사례씩, 18평, 23평과 28평, 45평이 각각 1사례씩으로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보다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공간의 소유상태는 임대아파트인 경우가 8사례, 전세인 경우가 8사례, 자가소유인 경우가 7사례, 부모님의 주택인 경우는 5사례, 판사인 경우가 5사례로 부주거지는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가족의 원거주지였던 것이 자녀양육상 주주거지를 옮기게 된 경우나 임대아파트인 경우 잦은 이사가 싫어서, 지방에서는 주택가격이 저렴하므로 자기소유의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사례의 주거환경적 특성

사례 No.	주주거지						부주거지				
	지역	주택유형	규모	소유여부	거주가족수	동거인	지역	주택유형	규모	소유여부	거주가족수
1	인천	아파트	32평	자가	4명	시아머니	광주	아파트	방1개	관사	1명
2	서울	단독주택	43평	시가소유	5명	시부모	전주	아파트	15평	자가	1명
3	성남	아파트	32평	자가	2명		전주	아파트	15평	임대	1명
4	서울	아파트	23평	자가	4명	유모	전주	단독주택	방1개	시가소유	친부모동거
5	서울	아파트	58평	자가	3명		전주	아파트	24평	임대	1명
6	전주	아파트	32평	자가	2명		수원	아파트	25평	자가	1명
7	서울	아파트	47평	자가	3명		전주	아파트	15평	임대	1명
8	서울	아파트	32평	자가	2명		여수	아파트	24평	자가	2명
9	전주	아파트	32평	자가	2명		서울	아파트	방1개	시가소유	1명
10	서울	아파트	32평	자가	4명	시누이	전주	아파트	15평	임대	1명
11	광주	단독주택	45평	친정소유	6명	친정가족	서울	아파트	13평	임대	후배동거
12	서울	아파트	24평	전세	4명	시아머니	울산	아파트	24평	전세	1명
13	광주	아파트	49평	자가	2명		천안	아파트	23평	임대	1명
14	성남	아파트	46평	자가	3명		충주	아파트	24평	전세	1명
15	전주	아파트	23평	전세	3명		서울	아파트	25평	자가	1명
16	서울	아파트	29평	친정소유	3명	친정어머니	대구	아파트	28평	시가소유	시부모동거
17	대구	아파트	32평	자가	2명		전주	아파트	13평	임대	1명
18	인천	아파트	24평	자가	3명		안성	아파트	방1개	관사	1명
19	강릉	아파트	32평	자가	2명		천안	아파트	17평	전세	1명
20	서울	단독주택	50평	시가소유	5명	시부모	광주	아파트	16평	자가	1명
21	서울	아파트	32평	자가	3명		전주	아파트	13평	전세	1명
22	천안	아파트	38평	자가	3명		서울	아파트	18평	전세	1명
23	일산	아파트	47평	전세	3명		제주	아파트	16평	자가	1명
24	서울	아파트	48평	자가	3명		울산	아파트	24평	관사	1명
25	서울	아파트	28평	시가소유	4명	시부모	광주	아파트	13평	임대	1명
26	인천	아파트	27평	자가	3명		여주	아파트	10평	관사	1명
27	대구	아파트	48평	자가	2명		서울	아파트	17평	전세	1명
28	울산	아파트	45평	자가	3명		서울	아파트	24평	자가	1명
29	서울	아파트	32평	전세	1명		전주	아파트	17평	전세	1명
30	서울	아파트	24평	자가	1명	주말에만	전주	단독주택	45평	친정소유	친부모동거
31	서울	아파트	24평	자가	3명		전주	단독주택	방1개	누이소유	누이동거
32	춘천	아파트	32평	자가	4명	시부모	광주	아파트	13평	임대	1명
33	청주	아파트	28평	전세	4명	시아머니	광주	아파트	방1개	사택	1명

3. 주말부부가족의 주주거지 결정시 고려한 사항

주말부부가족이 주주거지를 결정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한 가족이 1개 이상의 사항을 고려해 주거지를 결정한 경우를 모두 포함해 사례의 총합은 사례수보다 많다. 자녀를 위해 저녁 늦은 시간이나 비상시에 시부모, 친정부모, 시누이, 올케, 친경형제 등 친척의 도움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주주거지를 결정하고자 했던 경우가 가장 많아 12사례였다. 이는 공적인 기관에서의 자녀탁아나 파출부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직장에서 저녁 늦은 시간에 귀가해야 한다든가,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에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즉 친척이나 친지의 거주지에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부부중 직장에서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주말에 이동이 용이하므로 주주거지는 근무시간이 많거나 제약이 많은 사람의 지역으로 정하고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시부모, 친정부모, 시누이와 동거하면서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원래 부모님이 사시던 곳을 주주거지로 결

정하는 경우가 6사례였다. 반면 전혀 낮은 지역이지만 엄마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공적인 기관에 탁아를 위탁하거나 과출부를 부르더라도 주주거지를 엄마의 직장이 있는 지역으로 선택한 경우도 6사례였다. 자녀의 교육환경이 좋기 때문에 주주거지로 결정한 사례도 6사례였다. 다음으로는 신혼초기부터 자리잡았던 곳이므로 안정적이므로 주주거지로 정한 경우가 4사례, 방학이 있으므로 주주거지가 아니어도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좋은 지역을 선택한 경우는 3사례, 서울과 가까워서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므로 선택한 경우는 2사례, 주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쉽기 때문에 선택한 경우는 2사례였다.

<표 3> 주말부부가족의 주거지 결정시 고려한 사항

주거지 결정시 고려한 사항	사례수
자녀를 위해 저녁 늦은 시간이나 비상시에는 친척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12
부부중 시간이 자유로운 사람이 이동하기 용이하므로	9
시부모, 친정부모, 시누이와 동거하면서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6
엄마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엄마의 직장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	6
자녀의 교육환경이 좋기 때문에	6
신혼초기부터 자리잡았던 곳이므로 안정적이어서 주주거지로 정함	4
방학이 있으므로 주주거지가 아니어도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3
서울과 가까워서	2
주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쉽기 때문에	2
합 계	50

연구문제 2번 주말부부가족의 주주거지(主住居地) 결정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은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주주거지 결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자녀들로서 자녀의 양육이나 자녀의 교육적 환경을 제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30사례)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연령(특히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라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에 따라 주주거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보기로 했다(표 4참조). 막내자녀의 연령이 8세 이하인 미취학아동기인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자녀의 주양육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주주거지로 결정하였으며, 따라서 시부모나 친정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시가나 친정이 주주거지로 결정되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시부모나 친정부모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시가나 친정이 가까이 있어 비상시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주주거지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순경(1999)의 연구에서 자녀가 있는 기혼 사무직 여성은 많은 경우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아이를 맡아 기른다. 특히 3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를 친정부모에게 맡기고 주말에 데리고 와서 일요일 저녁에 다시 맡기고 다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사시는 이웃에 주거지를 택한다. 이러한 대안이 없는 사무직 여성의 경우 양육 부담은 흔히 이직을 택하도록 한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막내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 학교가 끝난 후 부모가 직장에서 돌아올 시간까지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주거지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설에서 맡아줄 수 없는 늦은 시간대에는 친척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지역을 선택하고 있다. 막내자녀가 중학생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교육적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학군이 좋은 지역이나 학원이 우수성 등 교육적 환경의 질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자녀가 다 성장해서 학군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시기에는 생활이 편리한 지역을 주거지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막내 자녀의 연령과 주주거지 결정시 중요한 영향요인

막내 자녀의 연령	주주거지 결정시 중요한 영향요인
막내자녀가 미취학아동기인 8세이하의 경우	주양육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 자녀의 양육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 지역
막내자녀가 초등학교 재학중(8세-14세 이하)인 경우	자녀가 하교후나 양육자가 늦을 경우에 적절한 보호를 받을수 있는 지역(친척, 친지의 도움)
막내자녀가 중학생 이상인 경우	자녀의 교육적 환경이 좋은 지역 학군이 우수한 지역
막내자녀가 대학생 이상인 경우	생활이 편리한 지역

4. 주말부부가족의 거주유형

주말부부가족의 거주유형은 크게 4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유형과 특성을 정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유형 1은 부인이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남편이 주말마다 가족을 보기 위해 이동하는 유형이 조사대상중 20개사례로 가장 보편적인 주말부부가족의 유형이다. 이 유형의 특성은 남편의 직장생활이 남편의 직장생활이 주당 근무일수가 적거나 시간사용이 융통성이 있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부인의 직장위치가 자녀양육에 주변친척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는 자녀는 꼭 엄마가 돌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형이다.

다음으로는 유형 2로 남편이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부인이 주말마다 가족을 보기 위해 이동하는 유형인데 이 경우 자녀가 어릴 경우 시부모나 친정부모와 동거하므로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맡아줄 분이 있는 경우이거나, 부인의 직장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특히 방학이 있는 직업인 경우 실제 주중에 떨어져서 생활하는 시간이 다른 경우보다 짧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본 조사에서는 10개 사례가 이 유형에 속한다.

유형 3과 4는 사례수는 적으나 주말부부가족중 가장 힘들고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사례에서는 유형 3이 2사례, 유형 4가 1사례 보고되었다. 유형 3은 주중에는 부인이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주말마다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남편에게 이동하는 유형으로 부인의 직장생활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유형이며, 아직 자녀의 나이가 어려 학교에 다니기 이전에만 가능한 과도기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유형 4는 가족이 3곳 이상 분산되어 생활하는 유형으로 자녀를 한 곳에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자녀를 분산시켜 양육하거나, 부부의 직장이 거리가 너무 멀거나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자녀를 맡기고, 주말에 만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주중에는 부부가 각자 1인가족으로 생활하고 자녀는 시부모나 친정부모에게 맡기고 주말에 시댁이나 친정에서 함께 만나는 가족으로 장기간 지탱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유형으로 부모님이 어느 한쪽으로 이사를 하시거나 애들이 조금 크면 대안을 찾아내야 할 유형이다.

<표 5> 주말부부가족의 거주유형

주말부부가족의 거주유형	특 성	사례수
유형 1; 부인이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남편이 주말마다 가족을 보기 위해 이동하는 유형	남편의 직장생활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부인이 자녀양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는 엄마가 돌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
유형 2; 남편이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부인이 주말마다 가족을 보기 위해 이동하는 유형	시부모나 친정부모와 동거하므로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맡아줄 분이 있어서 부인의 직장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특히 방학이 있는 직업인 경우 실제 주중에 떨어져서 생활하는 시간이 다른 경우보다 짧기 때문에	10
유형 3; 주말마다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남편에게 이동하는 유형	부인의 직장생활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2
유형 4; 가족이 3곳 이상 분산되어 생활하는 유형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자녀를 분산시켜 양육 부부의 직장이 거리가 너무 멀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자녀를 맡기고, 주말에 만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1

5. 주말부부가족의 거주유형과 문제점

주말부부가족으로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문제점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양육에 심리적, 육체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점과 가족이 분산되어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비와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의 소모가 많다는 점이다. 또한 시간, 에너지, 비용의 한곳에서 생활하는 가족에 비해 부담이 많다는 것이다. 유형 1의 특징적인 문제점으로는 주중에 자녀를 혼자 돌보아야 하므로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인데 특히 저녁 늦은 시간이나 출장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최근 학교장 재량에 의해 공휴일이 아닌데도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녀를 데리고 출근하거나 적당히 맡길 곳이 없어 고민하게 된다. 자녀와 함께 생활하다 보니, 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없고, 남편의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가 적어 자녀와의 관계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고,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특히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자녀의 학교에서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편부모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행정상 부부임을 증명해야될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아주 이상한 가족으로 취급받기도 해 기분이 나빠지기도 한다.

유형 2의 문제점으로는 자녀양육의 심리적 부담과 죄책감을 느낀다. 주중에 자녀를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주말에는 도맡아 돌보아야 되므로 심리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다. 남편에게 다른 부인들처럼 항상 식사를 준비해주고, 아침에 출근준비를 못해주므로 미안함을 느낀다. 시부모와 며느리, 친정부모와 사위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시부모는 며느리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이유로 직장을 가지고 주말부부가 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항상 자기 아들이 결혼을 잘못했으며, 손자녀에게 소홀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학교에서 부모의 출석을 요구할 때 참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학교급식시 보조로 활동하도록 요구한다든가, 주중에 하는 학부모회의 등에 참석이 불가능하므로 애들에게 미안하다.

유형 3은 자녀와 함께 이동하게 되므로 너무 많은 시간, 에너지, 비용이 소모되며, 육체적으로 힘들다. 단 이 유형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 경우에만 가능하다.

유형 4는 가족이 3곳으로 분산되어 생활하는 곳이 많아 생활비, 교통비의 지출이 많다. 주말에 가족이 함께 모여도 심리적으로 안정된 가족의 주거공간이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주말부부들의 가장 심각하며 공통적인 문제가 바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이다. 점차 사회적으로 여성취업이 대세로 자리잡아 가지만, 육아는 개별 가족에게 그대로 맡겨져 있다. 아이는 반드시 엄마가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실은 취업주부에게는 육아를 제대로 못할 바에는 일을 그만 두라고 하고, 전업주부들에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24시간 가정만을 지키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의식 속에서 여성의 취업이 제한받게 되며, 주말부부의 경우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거나 죄의식을 느끼게 만든다. 이의 해결방안은 아이들은 엄마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과도 어울려 자라는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모든 구성원들이 갖게 되고, 사회가 육아를 함께 책임지므로서 전업주부의 피해의식도, 취업주부의 죄책감도 사라질 것이며, 여성의 취업이 자유로워지고, 여성들의 삶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 2002). 따라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의 확충과 질적인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닐 경우 방학도 공휴일도 아닌데 학교장 재량에 의해 등교하지 않아도 되는 날에 학교에서 맞벌이부부를 위한 조치를 준비해주었으면 좋겠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예정에 없던 일이라 직장을 가진 부모가 대처하기 어렵다. 자녀의 학교에서 학부모회의를 평일 근무시간에만 하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참석할 수 없게 되므로 외국처럼 학부모회의를 근무시간이후나 주말에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학부형이 자녀의 학교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여건상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지 않

아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재 국공립학교교사인 경우 최초의 임용지에서 타시도로의 진출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부부가 떨어져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진출의 폭을 확대시켜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보다 더 힘든 것이 기존의 가족문화에 의한 사회적 인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주부가 자녀와 남편을 주중에 돌보지 못하는 경우 시댁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많이 주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말부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일하는 여성에 대한 어려움과 정당한 평가, 사회적 역할과 기여도에 대해 여성개개인과 여성단체, 매스컴 등이 함께 꾸준히 노력해서 홍보하고 인식변화에 앞장서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주말부부가족의 거주유형과 문제점

거주유형	문 제 점
유형1	주중에 자녀를 혼자 돌보아야 하므로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특히 저녁 늦은 시간이나 출장이 필요한 경우, 공휴일이 아닌데 학교가 쉬는 경우) 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없다.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가 적고,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생활비, 교통비의 지출이 많다.
유형2	자녀양육의 심리적 부담과 죄책감을 느낀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을 느낀다. 시부모와 며느리, 친정부모와 사위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학교에서 부모의 출석을 요구할 때 참석할 수 없다. 생활비, 교통비의 지출이 많다.
유형3	이동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 에너지, 비용의 소모가 많다. 자녀가 어릴 경우에만 가능하다.
유형4	생활하는 곳이 많아 생활비, 교통비의 지출이 많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가족의 주거공간이 없다.

IV. 결론 및 제언

최근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와 더불어 수많은 여성들이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면서 특히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의 수행과 자녀의 주양육자 역할에 따른 피로의 누적과 다양한 역할 요구에 필요한 시간, 노력, 에너지 고갈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맞벌이부부중 직업상의 이유로 가족이 불가피하게 별거해서 살아야 하고 주말에만 만날 수 있는 주말부부도 증가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주말부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수치도 없고, 이들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말부부가족의 주거지결정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왜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말부부의 대부분은 맞벌이 부부가 가장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부부가 전문직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취업시장에 한계가 있어 임의로 직장의 위치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주말부부가족이 주주거지를 결정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자녀를 위해 저녁 늦은 시간이나 비상시에 시부모, 친정부모 등 친척의 도움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주주거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부부중 누가 직장에서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가,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맡아주는 분이 있는 지역, 엄마의 직장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기도 하며, 자녀의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3. 주말부부가족의 거주유형은 크게 4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유형은 주중에는 부인이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남편이 주말마다 가족을 보기 위해 이동하는 유형이다. 다음으로는 남편이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부인이 주말마다 가족을 보기 위해 이동하는 유형이다. 나머지 2개 유형은 과도기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4. 주말부부가족에게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양육에 심리적, 육체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점과 가족이 분산되어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비와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 시간, 에너지의 소모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엄마가 주말에만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경우 주중에 자녀를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주말에는 도맡아 돌보아야 되므로 심리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고, 남편에게도 항상 미안함을 느낀다. 시부모는 며느리의 취업으로 주말부부가 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항상 며느리가 자기 아들과 손자녀에게 소홀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문제로는 학교에서 부모의 출석을 요구할 때 참석할 수 없으므로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5. 주말부부들의 공통적인 문제인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육아를 개별가족에게만 맡기지 말고 사회가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의 확충과 질적인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방학이나 공휴일이 아닌 학교장 재량에 의해 등교하지 않아도 되는 날에는 학교에서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한 조치를 준비해주었으면 좋겠다. 학부모회의를 평일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이후나 주말에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국공립학교교사의 타시도로의 진출의 폭을 확대시켜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도적인 개선보다 더 힘든 것이 기존의 가족문화에 의한 사회적 인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이는 일하는 여성에 대한 어려움과 정당한 평가, 사회적 역할과 기여도에 대해 여성개개인과 여성단체, 매스컴 등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주말부부가족에 대한 연구의 시초이며, 통계적인 자료나 기존문헌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기초적인 연구로서 수행된 것이므로 주말부부가족의 아주 부분적인 연구만이 수행된 것이므로 단지 이 연구로 인해 주말부부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여성의 취업과 함께 증가할 주말부부가족의 주거지 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앞으로 주말부부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들 가족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주말부부가족의 문제해결을 개별가족에게만 맡기지 말고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활동의 증가될 수 있으며, 더 많은 여성인력의 사회적 기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인숙(1989). 도시가구의 주거이동 유형이 가정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권 2호, 127-144.
- 통계청(2001). **경제활동인구조사**. 180-181.
- 21세기주부문화연구소(2002) www.jubu21.or.kr
- 진수희(1999). 전문직 여성의 일과 삶의 질. **여성의 일과 삶의 질**. 미래인력연구센터 15-68.
- 유계숙, 유영주(2002). 서울시민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40권 5호. 79-94.
- 조순경(1999). 사무직 여성의 일과 삶의 질. **여성의 일과 삶의 질**. 미래인력연구센터 111-152.